



## 경도지적장애 성인의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에 관한 연구

김 화 수\* · 임 소 연\*\* · 이 지 우\*\*\* · 우 혜 진\*\*\*\*

### A Study on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 Using Indirect Speech Acts of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Kim, Whasoo\* · Lim, Soyeon\*\* · Lee, Ji woo\*\*\* · Woo, Hye jin\*\*\*\*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 using indirect statements on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o use the findings as basic data in the guidance.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30 people of 15 adults aged 19-23 and 10-12 of language age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nd 15 age-matched group of general children.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 using indirect statements by developing a testing tool that includes indirect speech acts(sentence category, illocutionary act) and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causal reason, inference of solution, supposition of clues). For data processing, this study conducted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When comparing the two groups, in all three cases (total score, interrogative sentence, declarative sentence), the score of the non-disabled student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adults group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Next, the group of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showed a higher rate of incorrect responses than the group of non-disabled students and the error type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ls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our different situations, in particular,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text of friends. Last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ng a correlation between vocabulary ability and language problem solving ability using indirect statement of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is a distinct quantitative correlation between 3 different condition. **[Conclusio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have a significance in that this study has identified indirect statements and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using indirect statement sentences composed of dialogue, and hope to use these findings as a basis of verbal intervention.

**Key Words** :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Indirect statements,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Korea.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석사(suseongsy@naver.com)

Master's thesis, Dept. of Speech Pathology,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Korea.

\*\*\* 공동저자, 동아대학교 음악문화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Music and Culture, Dong-A University, Korea.

\*\*\*\* 공동저자,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석사

Master's thesis, Dept. of Speech Pathology,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Korea.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활한다. 그런데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직접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직접적인 문장보다는 간접적인 말을 사용하여 나의 의도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타인과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주어진 대화 내 단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Abbeduto et al., 1988; 진강려, 2013) 자신의 생각을 상황에 맞도록 타인에게 구어 또는 비구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조인수 & 박정식, 2006).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의도를 가질 때마다 발생하는 화행은 화용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화행이론을 주장한 Austin(1962)은 문장 자체의 의미보다는 대화 내 맥락 속에서 문장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됨을 중요시하였으며 언어적 행위를 언표적 행위, 언표내적 행위, 언향적 행위로 구분하였다. 그중 언표내적 행위는 언어 행위 중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정훈영, 서경희, 2012), 발화 행위는 언표내적 행위의 문자적인 힘과 상황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작용의 일치여부에 따라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누어진다(서지원, 2012).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때 내가 원하는 말을 직접화법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지만, 주변 상황이나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말을 간접적인 화법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그중 간접화행은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다른 화행을 수행하는 표현을 발화하여 간접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간접화행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고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여 적절한 수행을 하는 것이다. 간접화행의 언표내적 행위는 진술, 청유, 명령으로 나누어지며 진술은 정보를 전달, 사실 주장, 기술 등, 청유는 제안, 권유 등, 명령은 지시, 금지, 충고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접화행은 일상생활 중 무의식적으로 사용되어 자주 등장하는 발화의 형태로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로는 “걸레 빨리 갈까?”에서 종결어미 ‘-까’의 의문문의 형태이나 상황적인 맥락과 결합 시 ‘청소하러 가자’라는 청유문의 기능으로 해석되는 것 등이 있다(정훈영, 서경희, 2012). 이처럼 간접화행이 포함된 상황맥락을 바르게 이해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화 시 함축적인 내용에서 전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론능력, 세상사 지식, 마음읽기 능력 등 상위언어능력이 요구된다.

화용능력은 영유아기부터 발달이 시작되나, 다양한 상황 내 맥락정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여러 발달과정을 거쳐야 한다(Bucciarelli et al.,

2003). 대부분의 일반아동들은 생후 9~12개월이 되면 주된 의사소통으로 제스처나 음성 등을 사용하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낱말을 조합하기 시작하여 복잡한 구문구조를 나타낸다. 또한 4~5세가 되면 상위언어능력 중 단어인식, 구문 및 의미인식 능력이 발달되며(심혜숙, 2007), 6세가 되면 단순한 간접화행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Bernicot et al, 2007; Elord, 1983). 6세, 8세, 10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화 시 필요한 관용어 이해, 간접적 질문, 함축 과제 가운데 간접적 질문을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Bernicot et al, 2007). 또한 Ackerman(1987)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짧은 단락의 수준에서 화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이 성인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특히 간접화행 발달을 살펴보면, 학령전기부터 산출이 시작되어 3~5세 사이에 직접화행에 대한 간접화행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5~6세 사이에는 요청문 내부적 구조가 발달하며 7세가 되면 간접화행을 좀 더 상황맥락에 맞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후 연령이 증가하여 학령기에 이르게 되면 융통성의 증가로 맥락과 발화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으며, 성인기에 이르게 되면 간접화행이 다양한 일상생활 속 상황에서 유연하게 이루어진다(권도하 외, 2013).

하지만 간접화행 발달에 결함이 있거나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게 되면 문자 그대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기 때문에 눈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간접화행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면서 관계 형성에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 간접화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추론능력과 문자 정보 통합 능력에서 제한을 보일 수 있고, 어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동음이의어나 비유적, 추상적인 의미를 받아들여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조은진, 2015). 이러한 결함이 학령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면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낮은 성취감,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언어문제해결력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을 정리한 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표현하는 능력으로(임선숙 & 조성연, 1997), 언어문제해결력에서의 결함은 비유적 표현, 간접적 표현의 결함으로 이어진다(Kaiser & Hester, 1994). 배소영 등(2000)의 연구에서는 '왜, 어떻게, 어떤'을 포함하는 질문에 이해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언어문제해결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이해를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덧붙였다. 또한 문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인-결과 관계 이해, 해결 대안 제시. 주요 단어나 미래 상황 추론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언어문제해결력과 간접화행은 세상사 지식을 필요로 하고 상황을 추론하여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상위언어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지적장애 아동들의 언어발달 특성을 살펴보면 중도 지적장애가 아닌 대부분은

일반아동과 비교 시, 정신연령 10세 이전에는 발화 양, 발화 길이, 말의 속도에서 차이를 보일 뿐 형태가 유사하나 10세 이후가 되면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언어를 보인다(Owens, 2002). 또한 새로운 구문 형태를 배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복잡한 문장 형태를 학습할 수는 있으나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매우 제한적이다(Kerman, 1990). 지적장애 아동들은 특히 사회적 기능 결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일반학생에 비하여 낱말을 파악하고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글자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심현섭 외, 2010), 형용사나 부사 등 수식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 아동에 비해 늦은 상위언어 및 비유언어의 발달(오진영 & 이은주(2014)은 유머 풍자 등의 이해 결함으로 이어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보를 이해하고 제공하는 참조적 의사소통, 명료화 요구, 새로운 정보 획득 등 기술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대화 시 일반아동에 비하여 다시 말해 달라는 요구를 더 많이 받으며(김성일 & 황민아, 2006), 타인의 명료화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취약하다(김성일 & 황민아, 2006). 같은 맥락으로 전병운과 조유진(2001), 나수화와 정은희(2006)의 연구에서도 지적장애 아동이 화행 규칙 이해가 낮으며 수준에 따라 의사소통 의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마음이론 과제 수행에 대해 살펴본 정지운 등(2014)의 연구에서도 지적장애 집단이 언어연령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용능력 결함이 지속되면 성인기에 이르러 직업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보처리의 부족, 인지 능력 제한에서 오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다른 어려움과 더불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김화수, 이숙, 서다희, 엄윤지, 2017). 또한 지적장애인은 낮은 인지능력으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언어적으로 대답하거나 질문하기 능력에서 어려움이 보이며,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낮아 대화 중 부적절한 반응을 자주 보인다(김영태, 2002). 또한 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를 찾아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문장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문상진, 2012).

전술된 내용과 같이 간접화행과 언어문제해결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검사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특히 경도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도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간접화행과 언어문제해결력이 포함된 검사도구를 제작하여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학생들과의 차이를 통해 경도지적장애 성인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며, 경도지적장애 성인을 위한 간접화행과 언어문제해결력 지도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2. 연구 문제

- 1) 두 집단(지적장애 집단, 비장애 학생 집단) 간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 차이는 어떠한가?
- 2) 두 집단 간 문장유형별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 차이는 어떠한가?
  - (1) 두 집단 간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 평서문, 의문문별 점수 차이는 어떠한가?
  - (2) 두 집단 간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 진술-단서추측, 청유-원인이유, 명령-해결추론 별 점수 차이는 어떠한가?
  - (3) 두 집단 간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의 3가지 조건(진술-단서추측, 청유-원인이유, 명령-해결추론)별 점수 차이는 어떠한가?
- 3) 두 집단 간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에서 어떠한 오류 유형을 나타내는가?
- 4) 두 집단 간 상황별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 차이는 어떠한가?
- 5) 지적장애 집단의 어휘능력과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에 거주하는 경도지적장애 성인 15명과 비장애 학생 15명으로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도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비장애 학생 집단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경도지적장애 성인 집단 선정기준

- ① 생활연령이 19~23세 사이인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② 병원 및 사설기관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에 해당하여 지적장애로 진단받은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 ③ 시각, 청각, 정서, 행동장애가 없는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 ④ 수용·표현어휘력검사 결과, 표현언어 등가연령이 10~12세에 해당하는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 ⑤ 구문의미 이해력검사 결과, 9세를 기준으로 하여 -1SD 이상에 해당하는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2) 비장애 학생 집단 선정기준**

- ① 생활연령이 10~12세 사이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② 시각, 청각, 정서, 행동, 학습, 지적장애가 없는 초등학생으로 선정하였다.
- ③ 수용·표현어휘력검사 결과, 경도지적장애 성인과 언어연령이 일치하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 ④ 구문의미 이해력검사 결과, 경도지적장애 성인과 언어연령이 일치하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언어연령을 10~12세로 선정한 이유는 문법적 능력이 10세경 완성되는 것에 반해 화용적 능력은 문법적 능력과는 일치하지 않고 발달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사진영, 2015; 엄윤지, 2017). 즉 연구대상자는 문법적 능력이 완성되는 10세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의 구문의미 이해력검사 점수는 원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1SD 이상에 해당하는 성인 및 학생의 결과이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o.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ge-matched group of general children		
	Chronological age	Sex	REVT-E(age)	Chronological age	Sex	REVT-E(age)
1	19;8	M	12	10;7	M	12
2	19;10	M	10	10;1	M	11
3	19;2	F	10	10;2	F	10
4	20;1	M	10	10;2	F	10
5	19;4	F	10	10;5	M	10
6	19;3	M	12	10;3	M	11
7	20;4	M	11	10;3	M	12
8	20;6	F	12	11;3	M	10
9	21;3	F	10	11;1	F	12
10	19;2	M	10	11;7	F	10
11	23;4	M	11	11;6	M	10
12	20;9	M	10	11;6	F	10
13	20;1	F	10	12;2	M	11
14	20;11	M	10	12;1	M	10
15	19;4	M	115	11;9	F	11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비장애 학생 집단 간 연령, 언어연령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수용·표현어휘력,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결과의 원점수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Table 2> Information of study participant's**

Group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n=15)		Age-matched group of general children (n=15)		<i>t</i>	<i>p</i>
	M	SD	M	SD		
REVT-E (age)	10.60	.83	10.67	.82	-.222	.826
KOSECT (score)	50.86	3.59	51.20	3.81	-.247	.807

두 집단의 언어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표현어휘력과 구문의미이해력을 실시한 후 동질성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현어휘력 검사의 경우 지적장애 성인 집단이 평균 10.60(SD=.83), 비장애 학생 집단은 10.67(SD=.82)로 나타나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22, p=.826$ ). 구문의미이해력검사 결과 역시 지적장애 성인 집단은 평균 50.86(SD=3.54), 비장애 학생 집단은 51.20(SD=3.81)로 나타나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247, p=.807$ ). 이는 두 집단이 언어연령이 일치하는 동질 집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 도구

### 1) 대상자 선별을 위한 언어 검사도구

#### (1) 수용·표현어휘력검사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는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어휘에 대한 이해 및 표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총 18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연령이 10~12세에 해당하는 경도지적장애 성인 15명을 선별하고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비장애 학생 15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2) 구문의미 이해력검사

구문의미 이해력검사(Korean Sentence Comprehension Test: KOSECT,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2004)는 4세부터 9세까지 아동의 구문의미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경도지적장애 성인과 비장애 학생의 구문, 의미 영역의 언어연령을 선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2)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을 위한 검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 검사도구 개발과정은 <표 3>과 같다.

<Table 3> Development process of testing tools

- 
1. Find indirect statement and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related literature
  2. Modification of existing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 testing tool
  3. Development of preliminary research tool
  4. Verification of expert content validity
  5. Selection of final questions
- 

경도지적장애 성인의 간접화행 이해와 언어문제해결력을 살펴보기 위해 본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간접화행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사진영(2015), 이아름(2012), 엄윤지(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들로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의 하위영역을 포함하였다. 간접화행은 문장유형(평서문, 의문문), 언표내적 행위(진술화행, 청유화행, 명령화행)로, 언어문제해결력 하위영역은 원인이유, 해결추론, 단서추측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 영역을 고르게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검사는 4가지 상황(학교, 친구, 가정, 식당)으로 구성하였으며 한 상황 당 3문제로 총 12문제이다. 각 문제의 질문지는 언어문제해결력과 관련된 것이며 내용은 두 사람의 대화문으로 구성하였다. 대화의 마지막 문장에 간접화행을 인용하여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고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언어문제해결력 관련된 질문과 간접화행은 각 문항에 고르게 분배하였다. 모든 문항의 객관식 구성은 정답, 문자 그대로 해석한 오류, 맥락의 일부를 사용한 추론적 오류로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배점은 정반응 시 1점, 오반응(문자 그대로 해석한 오류, 맥락의 일부를 사용한 추론적 오류) 시 0점을 부여하여 총점은 12점이다. 오반응에 따른 오류유형 분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 오류와 맥락의 일부를 사용한 추론적 오류의 수를 세어 전체 오류 객관식 문항에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한 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제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와 예시는 <표 4>, <표 5>와 같다.

**<Table 4> Testing tools used in research**

No.	Situation			
	School	Friend	House	Restaurant
1	Interrogative sentence/Statement /Supposition of clues	Declarative sentence/Statement /Supposition of clues	Declarative sentence/Statement /Supposition of clues	Interrogative sentence/Statement /Supposition of clues
2	Declarative sentence/Request/ Causal reason	Interrogative sentence/Request/ Causal reason	Interrogative sentence/Request/ Causal reason	Declarative sentence/Request/C ausal reason
3	Interrogative sentence/Order/Inf erence of solution	Declarative sentence/Order/Inf erence of solution	Declarative sentence/Order/Inf erence of solution	Interrogative sentence/Order/Inf erence of solution

**<Table 5> Examples of problems in each situation**

Situation (Component)	Example Sentence
School  (Interrogative sentence/Order/ Inference of solution)	<p>Q. <u>What should you do when B says "children, aren't your hands dirty?"?</u></p> <p>A (While playing in the sand) I'm going to build it higher~                      B (Towards the playground) Children, come into the classroom now.                      We have to start class~                      A Yes, teacher~                      B <u>Children, aren't your hands dirty?</u></p> <p>1. Check to see if your hands are really dirty. (message)                      1. Wash my hands. (answer)                      1. Say playing in the sand was really fun. (context)</p>
Friend  (Declarative sentence/ Statement/ Supposition of clues)	<p>Q. <u>What does B want to do?</u></p> <p>A Hey, where are you going?                      B I'm going home.                      A Let's go to the PC room and play games.~                      B <u>I have a test tomorrow.</u></p> <p>1. I want to go to the PC room tomorrow. (context)                      1. I want to go study. (answer)                      1. I want to tell my friend that we have a test tomorrow(message)</p>

<Table 5> Examples of problems in each situation (continued)

Situation (Component)	Example Sentence
House  (Interrogative sentence/Request/ Causal reason)	Q. <u>Why did B say "isn't the kitchen too dirty??"</u>  A I'm too bored. B 00, do you want to clean the house with mommy? A Ok, I'd love to! B <u>00, isn't the kitchen too dirty??</u>  1. Because I want to clean the kitchen first. (answer) 2. Because I want to say that the kitchen is dirty. (message) 3. Because I want to talk and discuss about cleaning the house(context)
Restaurant  (Interrogative sentence/ Statement/ Supposition of clues)	Q. <u>What does B want to do?</u>  A Excuse me, can I have 1 jjamppong here? B Isn't it too hot in the restaurant? A Oh yeah? B <u>Excuse me, is the air conditioner working?</u>  1. I want to turn the air conditioner on. (answer) 2. I want to check if the air conditioner is working. (message) 3. I want to eat something cool. (context)

### 3) 내용타당도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 검사도구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1차 검사도구 개발 후, 검사문항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검증은 통해 각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는 언어치료전공 박사이면서 경력 15년 이상 1명, 언어치료전공 박사과정 7명,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타당도는 5점을 만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실시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평균 4.3점 이상에 해당하여 본 문항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 4) 자료분석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비장애 학생 집단 간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5.0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의 검사 결과를 수치화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의 전체 점수 차이와 문장유형별, 상황별 점수의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두 집단 간 간접화

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의 3가지 조건별 점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서는 어휘능력과 진술-단서추측, 청유-원인이유, 명령-해결추론 간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와 대상자 간 조용한 공간에서 1:1로 마주 앉은 상태에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설센터 및 대상자의 학교 내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검사 진행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 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는 두 사람의 대화문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3가지 문항에서 답을 고르는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으로 총점은 12점으로 처리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 전체 점수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 전체 점수는 <표 6>과 같다.

**<Table 6>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 of total score of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 using indirect statements between groups**

Group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n=15)		Age-matched group of general children (n=15)		t	p
	M	SD	M	SD		
Indirect speech act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ies	7.66	2.79	10.20	1.26	-3.199	0.005**

\*\* $p < .01$

<표 6>의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 전체 점수 결과, 지적장애 집단은 평균 7.66(SD=2.79)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 학생 집단은 평균 10.20(SD=1.26)으로 나타나,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 $t = -3.199$ ,  $p = 0.005$ )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2. 집단 간 문장유형별 언어문제해결력 점수

1) 집단 간 평서문, 의문문별 점수는 <표 7>과 같다.

<Table 7>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 of declarative sentence and interrogative sentence between groups

Group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n=15)		Age-matched group of general children (n=15)		t	p
	M	SD	M	SD		
Declarative sentence	3.46	1.55	4.73	0.88	-2.747	.010*
Interrogative sentence	4.20	1.52	5.46	0.83	-2.828	.010*

\* $p < .05$

<표 7>의 집단 간 평서문, 의문문별 점수 결과, 평서문에서의 지적장애 집단은 평균 3.46(SD=1.55)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 학생 집단은 평균 4.73(SD=0.88)으로 나타나 집단 간 평서문( $t = -2.747, p = .010$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의문문에서의 지적장애 집단은 평균 4.20(SD=1.52)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 학생 집단은 평균 5.46(SD=0.83)으로 나타나 집단 간 의문문( $t = -2.828,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의 진술-단서추측, 청유-원인이유, 명령-해결추론 별 점수는 <표 8>과 같다.

<Table 8>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 of statement-clue estimation, reason of request-cause, and command-solution inference

Group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n=15)		Age-matched group of general children (n=15)		t	p
	M	SD	M	SD		
Statement-Supposition of clues	2.33	1.29	3.27	0.88	-2.311	.028*
Request-Causal reason	2.07	1.22	3.20	0.86	-2.934	.007**
Order-Inference of solution	3.27	.70	3.73	0.46	-2.153	.040*

\* $p < .05$ , \*\* $p < .01$

<표 8>의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의 진술-단서추측, 청유-원인이유, 명령-해결추론에 해당하는 반응 별 점수 결과, 진술-단서추측에서의 지적장애 집단은 평균 2.33(SD=1.29)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 학생 집단은 평균 3.27(SD=0.88)으로 나타나 집단 간 진술-단서추측( $t=-2.311, p=.028$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청유-원인이유 문항에서 지적장애 집단은 평균 2.07(SD=1.22)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 학생 집단은 평균 3.20(SD=.86)으로 나타나 집단 간 청유-원인이유( $t=-2.934, p=.007$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명령에서의 지적장애 집단은 평균 3.27(SD=0.70)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 학생 집단은 평균 3.73(SD=0.46)으로 나타나 집단 간 명령-해결추론( $t=-2.153, p=.040$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3)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의 3가지 조건(진술-단서추측, 청유-원인이유, 명령-해결추론)별 평균 비교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의 3가지 조건별 평균 비교는 <표 9>와 같다.

**<Table 9> Result of one way-ANOVA of mean comparison by 3 conditions (Request-Cause, Command-Solution, Statement-Clue) of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 using indirect statements**

Group (N)	Statement-Clue		Request-Cause		Command-Solution		F	Degree of freedom	Significance probability	Duncan's post hoc analysis
	M	SD	M	SD	M	SD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15)	2.33	1.29	2.07	1.22	3.27	0.70	4.885	2	.012*	1,3≠2
Age-matched group of general children (15)	3.27	0.88	3.20	0.87	3.73	0.46	2.192	2	.124	

<표 9>의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의 3가지 조건별로 평균을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 집단은 3가지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또한 지적장애 집단의 청유-원인은 평균 2.07(SD=1.22), 명령-해결의 평균은 3.27(SD=0.70), 그리고 진술-단서의 평균은 2.33(SD=1.29)로 명령-해결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던칸 사후검증 결과 청유-원인, 진술-단서 조건과 명령-해결이 다른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애 학생 집단은 3가지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 비장애 학생 집단의 청유-원인 평균은 3.20(SD=0.87), 명령-해결 평균은

3.73(SD=0.46) 그리고 진술-단서 평균은 3.27(SD=0.88)로 명령-해결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3가지 조건 중에서 명령-해결 조건에서 평균이 가장 높고 청유-원인 조건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을 나타낸다.

### 3.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에서 나타나는 오류 유형별 빈도 및 백분율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 오류 유형별 빈도 및 백분율은 <표 10>, <표 11>과 같다.

<Table 10> Frequency and percentage result by type of error between groups

Group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n=15)		Age-matched group of general children (n=15)	
	Type of error	M(SD)	%	M(SD)
Literally interpreted error	3.27(2.09)	75%	1.47(1.25)	75%
Inference error using parts of context	1.07(1.03)	25%	0.27(0.46)	25%
Total	4.33(2.79)	100%	1.73(1.28)	100%

<표 10>의 두 집단 오류 유형별 빈도 분석 결과, 지적장애 집단의 오반응 수는 평균 4.33(SD=2.80)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 학생 집단의 오반응 수는 평균 1.73(SD=1.28)로 지적장애 집단이 비장애 학생 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오류 유형별 빈도 및 백분율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집단의 문자 그대로 해석한 오류는 평균 3.27(SD=2.09)로 나타나 백분율은 75%로 나타났으며, 비장애 학생 집단이 문자 그대로 해석한 오류는 평균 1.47(SD=1.25)로 나타나 백분율은 오류 전체에서 75%를 차지했다. 또한, 지적장애 집단의 맥락의 일부를 사용한 추론적 오류는 평균 1.07(SD=1.03)로 나타나 백분율은 25%로 나타났으며, 비장애 학생 집단의 맥락의 일부를 사용한 추론적 오류는 평균 0.27(SD=0.46)로 나타나 백분율은 25%로 나타났다.

**<Table 11> Rate and cause of error(%) between groups**

No.	Category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Rate	Cause of error(%)		Age-matched group of general children Rate	Cause of error(%)	
			Message	Context		Message	Context
1	Interrogative sentence/Statement/Supposition of clues	13.33	50	50	13.33	100	
2	Declarative sentence/Request/Causal reason	53.33	87.5	12.5	20	100	
3	Interrogative sentence/Order/Inference of solution	33.33	60	40	13.33	100	
4	Declarative sentence/Statement/Supposition of clues	60	88.89	11.11	20	100	
5	Interrogative sentence/Request/Causal reason	53.33	87.5	12.5	6.67		100
6	Declarative sentence/Order/Inference of solution	33.33	60	40	33.33	100	
7	Declarative sentence/Statement/Supposition of clues	33.33	40	60	13.33	100	
8	Interrogative sentence/Request/Causal reason	26.67	100		13.33	20	50
9	Declarative sentence/Order/Inference of solution	60	88.89	11.11	20	66.67	33.33
10	Interrogative sentence/Statement/Supposition of clues	33.33	40	60	6.67	100	
11	Declarative sentence/Request/Causal reason	13.33	100		20	100	
12	Interrogative sentence/Order/Inference of solution	20	66.67	33.33	6.67		100

<표 11>의 두 집단 오류 유형별 간 오류율과 오류 형태를 분석한 결과, 11. 평서문-청유-원인이유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지적장애 집단의 오류율이 비장애 학생 집단 오류율보다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류 형태 역시 비장애 학생 집단보다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지적장애 집단의 오류율 중 4.

평서문-진술-단서추측과 9. 평서문-명령-해결추론이 60%로 가장 많은 오류율을 보인 항목이었으며 두 문항의 오류 형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 오류 88.89%, 맥락의 일부를 사용한 추론적 오류 11.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 평서문-청유-원인이유와 5. 의문문-청유-원인이유가 53.33%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오류 형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 오류 87.5%, 맥락의 일부를 사용한 추론적 오류 12.5%로 동일한 오류율이 나타났다. 또한, 오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문자 그대로 해석한 오류가 두드러지게 많이 보였던 비장애 학생 집단에 비해 지적장애 집단은 오류 형태를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냈다.

#### 4. 집단 간 상황별 언어문제해결력 점수

집단 간 상황별(학교, 친구, 가정, 식당) 언어문제해결력 점수는 <표 12>와 같다.

**Table 12.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 of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 using indirect statements by situation between groups**

Group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n=15)		Age-matched group of general children (n=15)		t	p
	M	SD	M	SD		
School	2.00	0.76	2.53	0.52	-.256	0.32
Friend	1.93	0.88	2.60	0.51	-2.534	.019*
House	1.80	1.08	2.47	0.52	-.2.153	0.44
Restaurant	2.00	1.07	2.60	0.63	-1.871	.074

\* $p < .05$

<표 12>의 두 집단의 언어문제해결력을 상황별 점수를 분석한 결과, 학교 상황은 지적장애 집단이 평균 2.00(SD=0.76)이었으며 비장애 학생 집단은 평균 2.53(SD=0.52)로 나타났다. 친구 상황은 지적장애 집단 평균 1.93(SD=0.88), 비장애 학생 집단 평균 2.60(SD=0.51)로 나타났다. 가정 상황은 지적장애 집단은 평균 1.80(SD=1.08), 비장애 학생 집단 평균 2.47(SD=0.5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식당 상황은 지적장애 집단 평균 2.00(SD=1.07), 비장애 학생 집단 평균 2.60(SD=0.63)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간 친구 상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2.534, p = .019$ ).

## 5. 지적장애 집단의 어휘능력과 언어문제해결력 점수 간의 상관관계

지적장애 집단의 어휘능력, 진술-단서추측, 청유-원인이유, 명령-해결추론 간 상관관계는 <표 13>과 같다.

<Table 1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etween vocabulary ability, statement-clue estimation, and reason of request-cause of a group of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1	2	3	4
1. Vocabulary ability	1			
2. Statement-supposition of clues	.347	1		
3. Request-causal reason	.388	.664*	1	
4. Order-inference of solution	.404	.603*	.559*	1

\* $p < .05$

<표 13>의 지적장애 집단의 어휘능력, 진술-단서추측, 청유-원인이유, 명령-해결추론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유-원인이유와 진술-단서추측 간( $r=.664, p=.007$ ), 명령-해결추론과 진술-단서추측 간( $r=.603, p=.017$ ), 명령-해결추론과 청유-원인이유 간( $r=.559, p=.030$ )에서 뚜렷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도지적장애 성인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비장애 학생 간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문장 유형별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오류 유형을 나타내는지, 상황별 차이가 있는지, 어휘능력과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관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 집단과 비장애 학생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의 전체 문항에 대한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 집단에 비해 비장애 학생 집단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도지적장애인이 상황적인 단서를 활용한 대화 상황에서 언어적인 형태로 바꾸는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행 이해능력이 비장애 학생에 비하여 어려움을 보인다는 McLean etal(1999)의

연구와 일치하며 경도지적장애 성인이 언어연령 일치 아동에 비하여 화행 이해능력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엄윤지(2017)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경도지적장애 아동은 작업기억의 제한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 추론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며(여광용 외, 2001), 계획 및 일반화, 새로운 환경에서 전략 적용 등에서 결함을 나타낸다(여광용, 1997)는 연구들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적장애 성인은 간접화행 이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추론과 마음읽기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정훈영, 서경희, 2012), 상황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언어적인 형태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에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집단 간 문장유형별 언어문제해결력 점수 차이가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문장유형에 따라서 의문문/평서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간접화행 범주와 언어문제해결력 범주를 매칭하여 진술-단서추측/청유-원인이유/명령-해결추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의문문과 평서문을 분석한 결과, 두 문장 유형 모두에서 지적장애 집단에 비하여 비장애 학생 집단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화행 이해에서의 의문문, 평서문별 차이에서 지적장애 성인 집단에 비해 비장애 학생 집단이 더 낮은 점수를 보였던 엄윤지(2017)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두 집단별 문장 유형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의문문에 비하여 평서문에서 더 많은 오류율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 성인은 간접적 질문과 함축, 관용어 이해 등에 제한을 보이며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접화행의 문장유형에 상관없이 의문문이나 평서문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진술-단서추측/청유-원인이유/명령-해결추론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3가지 조건 모두에서 지적장애 집단에 비하여 비장애 학생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가지 조건에서 두 집단 모두 명령-해결추론의 평균이 가장 높고 청유-원인이유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원인에 대한 의문사 질문인 '왜'보다 해결을 요구하는 의문사 질문인 '어떻게'에 대한 이해능력이 더 늦게 발달한다는 이정미(2004), 이민아(2009)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마도 본 연구의 방법이 선행연구와는 달리 단순하게 언어문제해결력과 관련된 질문 형태에서 벗어나 간접화행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심적으로 우세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강제성이 내포되어있는 명령에 비하여 함께 어떤 행동을 권유 및 제안하는 청유의 표현에서 더 낮은 이해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집단 간 언어문제해결력에서 어떠한 오류 유형을 나타내는가를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 집단이 비장애 학생 집단보다 오반응률이 높았다. 또한 오류 유형에서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항별 오류율을 살펴본 결과, 평서문-청유-원인이유를 제외한 문항에서 지적장애 집단이 비장애 학생 집단에 비하여 동일하거나,

더 높은 오류를 보였다. 지적장애 집단의 오류율 중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인 항목은 평서문-진술-단서추측과 평서문-명령-해결추론이며 평서문-청유-원인이유, 의문문-청유-원인이유의 순으로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문자 그대로 해석한 오류가 두드러지게 많이 보였던 비장애 학생 집단에 비해 지적장애 집단은 두 유형의 오류 형태를 비교적 다양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10~12세 언어연령의 경우 간접화행이 발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화행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의미를 추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간 오류 형태 차이의 결과는 관련성이 약한 문항을 선택한 비율이 문자 그대로 해석한 보기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진영(2015)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며, 문자 그대로 해석한 오류가 맥락 일부를 사용한 추론적 오류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엄윤지(2017)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화행에 대한 이해를 맥락에 의한 추론으로써 해석하기보다 말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은 모호한 정보를 제시한 후 핵심 사물이나 상황을 선택하게 하였을 때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무작위로 선택하려는 특성(Abbeduto, L. etal, 1991)이 간접화행에 대한 일부를 이해한 후 문자 그대로 해석한 문항을 제외하였으나 다양한 상황과 맥락이 영향을 끼쳐 정답 외 맥락 일부를 사용한 추론적 오류를 선택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집단 간 상황별(학교, 친구, 가정, 식당) 언어문제해결력 점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4가지 상황 모두 지적장애 집단에 비하여 비장애 학생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구 상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인은 사회성과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상호작용 및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Healey & Masterpasqua(1992)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4가지 상황 모두 비장애 학생에 비하여 낮게 나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상황은 친구 상황으로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대부분이 학령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교육 이후에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비장애인 학생과는 달리 가정으로 되돌아가거나 보호시설에 위탁되어(이성하, 나운환, 2012), 대인 및 친구 관계의 경험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공교육 이후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 집단의 어휘능력과 언어문제해결력 점수 간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어휘능력과 3가지 조건 간의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으나 청유-원인이유와 진술-단서추측 간, 명령-해결추론과 진술-단서추측 간, 명령-해결추론과 청유-원인이유 간에서 뚜렷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화행과 언어문제해결력이 상위언어능력에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상위언어

인식과 수용표현 어휘력 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전혜인(201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3가지 조건 간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나온 것은 ‘왜’와 ‘어떻게’에 해당하는 의문사 질문이 실제 담화 상황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김명희, 2005), ‘왜’ 의문사 발달이 선행되어야 ‘어떻게’에 해당하는 의문사 질문이 출현한다(이민아, 2009)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언어문제해결력과 관련된 의문사 질문이 서로 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표내적 행위에 해당하는 진술, 청유, 명령 간 서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연구 결과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화행 연구임을 고려하여 대화체로 구성하기는 하였으나 문자로 제시하여 흥미와 집중력이 다소 떨어졌을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및 대상자 수 확대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대화에서의 화행 연구를 더 고민해야 하며, 연구방법의 개발로 대상자의 이해와 흥미 및 집중력을 높인 상태에서의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화체로 이루어진 간접화행 문장을 이용하여 경도지적장애 성인의 간접화행 및 언어문제해결력을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및 화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도지적장애 성인을 위한 언어적 중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경도지적장애 성인들이 더욱 성공적인 의사소통자로 존재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bbeduto, L., Davies, B., & Furman, L. (1988). The Development of speech Act comprehension in mentally retarded individuals and Non retard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 1460-1472.
- Abbeduto, L., Davies, B., Solesby, S., & Furman, L. (1991). Identifying the referents of spoken messages: Use of context and clarification request by children with and without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5*(5), 551-562.
- Ackerman, B. P.(1987). Children's understanding of speech acts in conventional directive frames. *Child Development, 49*, 311-318.
- Austin, J., L.(1962). *How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e, S. Y., Lim, S. S., & Lee, J. H. (2000). *Test of Problems Solving*.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2000). **언어문제해결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Bae, S. Y., Lim, S. S., Lee, J. H., & Jang, H. S. (2004). *Korea Sentence comprehension Tes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2004).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Bernicot, J., Laval, V., & Chaminaud, S. (2007). Non literal language forms in children : In what order are they acquired in pragmatics and meta pragmatics?. *Journal of pragmatics*, 39, 2115-2132.
- Bucciarelli, M., Colle, L., & Bara, B. G.(2003). How children comprehend speech acts and communicative gestures. *Journal of Pragmatics*, 35, 207-241.
- Chen, J. L. (2013). A Study on Teaching Indirect Speech Acts of Interrogatives for Chinese Korean Learners. Doctoral thesis, Seoul University.
- [진강려 (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ho, E. J. (2015). Comprehension of Metaphor in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Ma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조은진 (2015). 경도지적장애 학생의 은유 이해 능력 : 시각적, 속성적, 심리적 은유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o, I. S., & Park, J. S. (2006). A Strategies of Teaching Assertivenes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to Improve Self-advocacy Abiliti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1), 1-32.
- [조인수 · 박정식 (2006). 장애학생의 자기결정 능력 강화를 위한 자기주장훈련과 효율적 의사소통 기술 지도 방략.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2), 327-349.]
- Elrod, M. M. (1983).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direct and indirect directiv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3, 217-27.
- Eom, Y. J. (2017). A Study on the Comprehension Ability of Adul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엄윤지 (2017).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화행 이해능력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ealey & Masterpasqua(1992)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among Children with Mild Retardation. 96(4), 367-372.
- Jeon, B. U., & Cho, Y. J. (2001). A Study on the Performance Rules of Speech Acts i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0(1), 1-23.
- [전병운 · 조유진 (2001). 정신지체학생의 화행규칙수행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6(1), 1-23.]
- Jeon, H. I. (2015). Pragmatic competence of School-Aged Children in accordance to their vocabulary develop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전혜인 (2016). 어휘능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령기 저학년 아동의 화용언어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ung, H. Y., & Seo, G. H. (2012).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Indirect Speech Acts Considering Children with Asperger Disorder.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0(1), 73-101.
- [정훈영, 서경희 (2012). 아스퍼거장애 아동의 간접 화행 이해 특성에 관한 연구. **정서 · 행동장애연구**, 28(1), 73-101.]

- Jung, J. Y., Kim, W. S., & Rhee, K. Y. (2014). A Study of Mind reading and Language development of Adul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5(3), 375-394.  
[정지윤, 김화수, & 이근용 (2014). 경도지적장애인의 마음읽기와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3), 375-394.]
- Kaiser, A. P., & Hester, P. P. (1994). Generalized effects of enhanced milieu teach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 1320-1340.
- Kim, M. H. (2005). The Development of Korean Interrogatives as Discourse Markers. *Discourse and Cognition*, 12(2), 41-63.  
[김명희 (2005). 국어 의문사의 담화표지화. **담화와 인지 제12권 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 Kim, S. I., & Hwang, M. A. (2006). Responses to requests for clarification i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0(4), 37-54.  
[김성일 황민아 (2006). 정신지체 아동의 명료화 요구에 대한 반응. **특수교육학연구**, 40(4), 37-54.]
- Kim, W. S., Lee, S., Seo, D. H., & Eom, Y. J. (2017).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Korea: 2000 to 2016.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9(1), 21-43.  
[김화수, 이숙, 서다희, 엄윤지 (2017). 국내 경도지적장애인의 언어특성과 관련된 연구동향 고찰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지적장애연구**, 19(1), 21-43.]
- Kim, Y. T. (2002). *Assessment and Treatment of Language Disorders in Children*. Seoul: Hakjisa.  
[김영태 (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Kim, Y. T., Hong, G. H., Kim, K. H., Jang, H. S., & Lee, J. Y. (2009).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어휘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Kwon, D. H., Lee, M. S., Shin, H. N., Shin, H. J., Jeong, B. S., Jeon, H. S., Kim, H. J., Ko, Y. O., Kwak, M. Y., Choi, S. Y., & Hwang, H. J. (2013). *Language Development*. Seoul: Pakhaksa.  
[권도하, 이명순, 신후남, 신혜정, 정분선, 전희숙, 김효정, 고영옥, 광미영, 최선영, 황하정 (2013). **언어발달**. 서울: 박학사.]
- Lee, A. R. (2012). The comprehension of indirect speech act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이아름 (201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아동의 간접화행 이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J. M.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2-4 Aged Children's Comprehension of wh-question.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이정미 (2004). 2~4세 아동의 의문사 이해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M. A. (2009). Development of Normal Children Ages 3, 4, and 5 on Understanding Wh-Question Words According to Verb Typ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이민아 (2009). 3, 4, 5세 일반아동의 동사 종류에 따른 의문사 질문 이해 발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S. H., & Na, W. H. (2012). Development of a Post - secondary Education Program Model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4(4), 255-292.  
[이성하, 나운환 (2012). 발달장애인의 중등교육이후 전환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한국 지적장애교육학회**, 14(4), 255-292.]
- Lim, S. S., & Cho, S. Y. (1997). *How can I do*.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임선숙, 조성연 (1997). **이럴 땐 어떻게 I**.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McLean, James E., Snyder-McLean, Lee, Ph.D. (1999). How Children Learn Language: A Guide for Professionals in Early Children or Special Singular Publishing Group.
- Moon, S. J. (2012). The Effect of Situation Mind-map Language Intervention on Linguistic Problem Solving Skills of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문상진 (2012). 상황마인드맵 언어중재가 경도지적장애학생의 언어언어문제해결력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Na, S. H., & Jeong, E. H. (2006). Analyzing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the Language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1(1), 64-80.  
[나수화 · 정은희 (2006). 정신지체아동 언어의 화용론적 특성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11(1), 64-80.]
- Oh, J. Y., & Lee, E. J. (2014). Idiom Understanding of Adul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5(4), 417-438.  
[오진영 · 이은주 (2014).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관용어 이해 능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4), 417-438.]
- Owens, R. (2002). Mental retardation: Difference and delay. In D. K. Bernstein & E. Tiegerman-Farber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in children*(pp. 436-509). Boston: Allyn and Bacon.
- Kerman, K. (1990). Comprehension of syntactically indicated sequence by Down's syndrome and other mentally retarded adults.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Research*, 34, 169-178.
- Sa, J. Y. (2015). The Comprehension of Indirect Speech Acts in Children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사진영 (2015). 경도 지적장애 아동의 간접 화행 이해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Seo, J. W. (2012). The Comprehension ability of Indirect Speech Act in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서지원 (2012).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간접화행 이해능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Shim, H. S., Kim, Y. T., Kim, J. S., Kim, H. E., Bae, S. Y., Shin, M. J., Lee, S. H., Lee, J. H., Han, J. S., Yoon, H. R., Kim, J. M., & Kwon, M. S. (2010). *Introduction to communicative disorders(2)*. Seoul: Hakjisa  
[심현섭, 김영태, 김진숙, 김향의, 배소영, 신문자, 이승환, 이정학, 한재순, 윤혜련, 김정미, 권미선 (2010). **의사소통장애의 이해(2판)**, 서울: 학지사]
- Sim, H. S. (2007). Relationships among Verbal ability, Metalinguistic ability and Young Children's Creativity,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심혜숙 (2007). 유아의 언어능력 및 상위언어능력과 창의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Yeo, K. E (1997).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Seoul: special education.  
[여광응 (1997). **정신지체아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Yeo, K. Y., Kim, N. Y., Jung, Y. S., & Nee., T. H. (2001). A Comparison Study on the Capacity of Working Memory of between the Mentally Retarded and Underachievers.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3(3), 1-23.  
[여광용 · 김나영 · 정영숙 · 이태화 (2001). 정신지체아와 학습부진아의 작업기억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지적장애연구**, 3(3), 1-23.]

<국문 초록>

## 경도지적장애 성인의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에 관한 연구

김 화 수 · 임 소 연 · 이 지 우 · 우 혜 진

**[목적]** 경도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을 알아보고 지도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9-23세이면서 언어연령은 10-12세에 해당하는 경도지적장애 성인 15명과 언어연령 일치 비장애 학생 15명으로 총 30명이었다. 간접화행(문장유형, 언표 내적 행위)과 언어문제해결력(원인이유, 해결추론, 단서추측)이 포함된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처리는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3가지 경우(전체 점수, 의문문, 평서문) 모두에서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에 비하여 언어연령 일치 비장애 학생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도지적장애 성인 집단이 비장애 학생 집단보다 오반응률이 높으며 오류 유형에서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4가지 상황별 차이 결과, 특히 친구 상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도지적장애 성인 집단의 어휘능력과 간접화행을 사용한 언어문제해결력 간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3가지 조건 간에서 뚜렷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대화체로 이루어진 간접화행 문장을 이용하여 경도지적장애 성인의 간접화행 및 언어문제해결력을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언어적 게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경도지적장애성인, 간접화행, 언어문제해결력

논문 접수(Received): 2020. 08. 07. / 심사 시작(Examined): 2020. 08. 07. / 게재 확정(Accepted): 2020. 09. 11.